

##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박 영 신<sup>†</sup>                      김 정 희                      전 성 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족형태별로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평균 45세의 중년 성인 1,258명(남 601, 여 657; 핵가족 1,111, 대가족 147)이었다. 측정도구의 양적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alpha$* =.67~.95이었고, 질적 문항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95.1%, *Kappa* 계수는 .95이었다. 분석 결과, 첫째, 가족형태별로 학력에 차이가 있었으나, 가정경제수준, 직업, 사회계층, 맞벌이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족형태별로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핵가족보다 대가족 중년 성인이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과 자녀를 위한 희생 및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대가족 중년 성인이 자기효능감 및 행복 수준이 높았다. 셋째,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가족 중년 성인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모님과 식사 횟수, 대화시간, 효도 마음, 노부모 부양행동이 더 많았다. 넷째,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본 결과, 핵가족과 대가족 중년 성인 모두,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을,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으로 의견차이 및 경제적 문제를,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 및 가정화목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족형태, 핵가족, 대가족, 노부모 부양인식, 노부모 부양행동

---

<sup>†</sup>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 서론

한국 사회의 가족형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크게 변화하여 왔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인 변화라기보다 질적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전수조사를 한 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2011)를 보면, 가구원 수 규모의 면에서 볼 때, 1980년에는 5인 이상 가구가 49.9%로 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4인 가구(20.3%)였다. 1985년에는 비록 그 비율에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5인 이상 가구(39.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인 가구(25.3%)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런데 1990년에는 4인 가구(29.5%)가 가장 많게 되었고, 그 이후 2005년까지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sup>1)</sup> 그러나 2010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된 가구원 수가 2인 가구(24.3%)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가구원 수가 이에 비슷한 비율로 1인 가구(23.9%)로 되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1인 가구(4.8%)와 2인 가구(10.5%)가 일부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가구 유형이 되었다.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가구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가구 구성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자녀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노부모를 모시던 대가족에서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핵가족으로의 가족형태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세대구성(통계청, 2011)을 보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23.9%)와 비친족 가구(1.2%)를 제외한 친족 가구(74.9%) 중에, 2세대 가구가 51.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세대 가구(17.5%), 3세대 가구(6.1%), 4세대 이상(0.1%)이

1) 1995년 31.7%, 2000년 31.1%, 2005년 27.0%.

다. 우리나라 가구의 세대구성 변화를 보기 위해 1980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4.8%)와 비친족 가구(1.5%)를 제외한 친족 가구(93.7%) 중에서 2세대 가구가 6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세대 가구(16.5%), 1세대 가구(8.3%), 4세대 이상(0.5%)의 순서였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간을 비교해 보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주된 세대구성인 점은 동일하지만, 그 비율이 68.5%에서 51.3%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2세대 가구 다음으로 3세대 가구(16.5%)로 많았는데, 2010년에는 1세대 가구(17.5%)가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3세대 가구는 6.1%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 1980년 경우 두 번째가 3세대 가구인 반면에, 2000년에는 1세대 가구로 바뀐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초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는 3세대 가구가 계속 감소되어 왔다.<sup>2)</sup>

이러한 전수조사 통계에 기초해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10개 가정 중에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9개 정도라면 조부모와 함께 3세대로 구성된 대가족은 1개 정도이다. 물론 2세대 가구에 부부와 자녀, 부와 자녀, 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부부와 부모의 조합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극소수이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대가족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표집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2) 1980년 16.5%, 1985년 14.4%, 1990년 12.2%, 1995년 9.8%, 2000년 8.2%, 2005년 6.9%, 2010년 6.1%.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노부모 부양이라는 가족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주제가, 핵가족과 대가족이라는 가족형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 변동에 따른 가족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우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인의 가족과 관련된 전통 가치의식이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적 성취의 원동력으로 작용(Kim & Park, 2000)하였는데, 그러한 성취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역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효도와 노부모부양 토착심리에 대한 분석을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조망해 봄으로써,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가족과 핵가족의 가족형태에 따른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보고,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관련 변인으로는 구조적 가정환경(사회경제적지위, 맞벌이 여부), 가족관계(배우자 정서적 지원, 자녀 정서적 지원, 자녀를 위한 희생,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 심리특성(자기효능감, 행복) 및 노부모 부양(효도 마음, 노부모 부양행동, 부모님 용돈, 식사 횟수, 대화 시간)을 포함하였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조성원, 1996)이 있으나, 경험과학적 검증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 토착심리 탐구의 일환으로 성인의 효도와 관련된 토착심리가 분석(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2011; 박영신, 김의철, 한기

혜, 2009)되어 왔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부모로서 중년 성인이 초, 중, 고, 대학생인 자녀의 효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다루었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효도의 토착심리를 연구(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한 결과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 지각을 다루었다.

노부모 부양인식을 다루는 이 연구는 효도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점에서 2010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효도의 토착심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즉 중년 성인이 부모입장이 아니라 자녀입장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를 규명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동일한 효도의 개념도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개념과, 중년 성인 시기에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개념은, 개인이 처해 있는 발달단계적 특성과 삶의 경험 및 상황적 차이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Lee, Park, Kim과 Song (2014)이 고등학생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연구한 결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 모시고 산다는 응답이 40.7%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보살피 드림과 모시고 산다가 각각 30% 정도의 반응율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을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으로는 의지가 됨과 가정화목이 대표적이었다.

이와 같이 모시고 사는 것을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으로 표집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한 Ahn, Park과 Kim(20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였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경제적 문제가 49.0%로 반수를 차지하였고, 노부모를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도 동일하게 경제적 문제(24.2%)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검토되었다. Han, Park과 Kim(2010)이 초,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인식을 비교한 결과,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 초 중학생은 보살피 드림과 모시고 산다가, 성인은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린다가 대표적인 응답이었다.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부모는 자녀 인성교육을, 초 중학생은 의지가 됨을 대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Ahn, Park과 Kim(2013)의 연구에서도 Han, Park과 Kim(201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대간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세대간에 동질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 죄송함이 과반수가 넘는 점에서 일치했다.

중년 성인 집단 내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Lee, Park과 Kim(2011)에 의하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각 집단의 과반수가 죄송한 마음이 들며,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으로 자녀 인성교육

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하면 감동이 되는 점에 대해 취업주부는 의지가 됨을, 전업주부는 함께 할 수 있음을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해 국가 간 비교 연구도 시도되었다. 최정혜(2009)가 한국과 미국 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미국 성인 자녀가 한국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와 관계의 질이 더 높았고, 한국 성인 자녀는 미국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 부양행동을 더 많이 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한국인 고유의 노부모 부양인식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 차이를 밝힌 결과도 있다. 최정혜(2007)가 기혼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부모와 동거하는 대가족의 기혼교사가 핵가족의 기혼교사보다 노부모 부양의식도 더 높았고, 노부모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최정혜(2007)의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행동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을 의미하였다.

또한 정명숙(2005)은 가족형태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 고, 대학생 및 성인과 노인으로 구성된 전체 집단에서, 핵가족일 때보다 대가족일 때 사회만족도가 높았으며, 특별히 대학생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았다.

한편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 인식 및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할 때, 성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당연했으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주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의 인식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만족이 낮고 일만족이 높은 기혼여성이 성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낮은 기혼여성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남순현, 2009), 기혼여성에게 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성별로 가족형태의 영향이 다름을 밝힌 연구가 있다. 장문선과 김영환(2002)에 의하면, 남편은 가족형태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가족형태별 차이가 있는데, 핵가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아내는 가족형태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었으나, 남편은 가족형태가 의미 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성별로 노부모와 갈등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있다. 서수균, 신현희, 안정신과 정영숙(2015)이 중년 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 갈등을 분석했을 때, 노부모와 관계, 노부모의 자기관리, 손 자녀문제의 세 가지 갈등영역이 정리되었다. 그 중에서 중년 자녀는 노부모와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갈등은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경험했다. 노부모와 관계 영역에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편애, 무시, 관심 및 배려 부족, 부양 부담,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이었는데, 그 중에 중년 여성은 편애, 중년 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 부족으로 갈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의 차이 분석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겠지만, 성별 역할과 관련된 인간관계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중년 남성인 아들과 노부모와의 갈등

만이 아니라 중년 여성의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족갈등의 분석을 맞벌이 남성, 맞벌이 여성, 외벌이 남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은희(2000)의 연구에서, 세 집단 모두 부부갈등이 일에서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벌이 남성은 이외에도 경제적 갈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성별 변인과 더불어 맞벌이/외벌이 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네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형태별로 구조적 가정환경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가정환경은 학력, 가정경제수준, 직업, 사회계층, 맞벌이 여부를 포함한다.

둘째, 가족형태별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자녀를 위한 희생,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심리특성으로는 자기효능감과 행복을 측정하며, 자기효능감은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노부모부양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독립변인으로서 가족형태만이 아니라 성별 변인을 함께 포함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성별 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효과를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족형태별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셋째,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노부모 부양은 효

도의 마음, 노부모 부양행동, 부모님 용돈, 식사 횟수, 대화 시간의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도 독립변인으로서 가족형태만이 아니라 성별 변인을 함께 포함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성별 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의 차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넷째,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부모 부양 인식은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 노부모 부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적 분석의 과정에서도 핵가족 대가족이라는 가족형태 집단별로만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형태별 집단 내에서 성별 하위집단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 인식에서의 차이를 중년 성인의 성별 변인과 연결하여 보다 정교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방법

### 분석대상

자료의 표집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의 3개 도시(안양시, 과천시, 광명시)에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 성인으로서, 표 1은 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인 1,258명의 가족형태별 성별 분포를 정리한 결과이다. 가족형태별로 보면 핵가족이 1,111명, 대가족이 147명이었다. 약 10:1의 구성비를 보이는데, 이러한 핵가족과 대가족

표 1. 분석대상

성별 \ 가족형태	핵가족	대가족	전체
남	519	82	601
여	592	65	657
계	1,111	147	1,258

의 구성비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세대구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통계청, 2011)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다(2세대 가구 51.3%, 3세대 가구 6.1%). 성별로는 중년 남성 601명, 중년 여성 657명이었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핵가족이 44.64세, 대가족이 45.70세로서 거의 같았고, 전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44.76세였다. 연령 분포를 보면 핵가족 경우에 30대가 15.7%, 40대가 66.8%, 50대가 17.6%였고, 대가족 경우도 30대가 10.9%, 40대가 66.7%, 50대가 22.4%로 거의 유사했다. 전체적으로는 30대가 15.1%, 40대가 66.8%, 50대가 18.1%로 구성됨으로써, 40대가 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0대의 순서였는데, 50대와 30대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분석대상 노부모의 평균 연령도 가족형태별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연령은 핵가족 74.98세, 대가족 74.50세였다. 어머니 연령은 핵가족 73.08세, 대가족 73.16세로 거의 유사하였다. 중년 성인 분석대상 전체집단의 아버지 연령 평균은 74.93세, 어머니 연령 평균은 73.09세였다.

분석대상 전체 집단의 노부모 건강상태는 아버지 경우에, 건강한 편임이 58.9%, 몸이 약하나 큰 병이 없음이 13.1%, 혼자 거동하나 불편하거나 병약함이 25.4%, 거동이 불가능함이 2.7%였다. 가족형태별로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차이가 없고 유사하였다.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임이 41.5%, 몸이 약하나 큰 병이 없음이 22.7%, 혼자 거동하나 불편하거나 병약함이 31.5%, 거동이 불가능함이 4.3%였다. 어머니도 가족형태별로 건강상태에서 일치하는 분포를 보였다.

#### 측정도구

노부모 부양 질문지는 양적 분석을 위한 변인, 자유반응형 문항, 배경정보로 구성되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의 구조적 환경은 다섯 측면에서 질문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섯 단계로 질문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최하에서 최상까지 다섯 수준으로 분류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만원 단위로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직업은 무직에서 고위관리/전문직까지 다섯 유형으로, 사회계층은 극빈층에서 최상류층까지 일곱 단계로 나누었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와 외벌이로 구분되었다.

가족관계는 4개 하위변인(배우자 정서적 지원, 자녀 정서적 지원, 자녀를 위한 희생,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을 포함한다. 각각 6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였다. 값이 클수록,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변인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문항 6개( $\alpha=.93$ )와 동일했으며, 단지 지시문만 배우

자에 대해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alpha=.94$ 로 확인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alpha=.95$ 로 매우 양호하였다(표 2 참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변인도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문항 6개를 기초로 하였다. 문항 내용은 동일하였고, 표현 및 지시문만 부모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수정되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변인의 신뢰도는  $\alpha=.88$ 이었다.

자녀를 위한 희생 변인은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제작한 부모 희생 문항 6개( $\alpha=.83$ )를 기초로 하였다.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와 김태우(2015)가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질문지를 중학생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alpha=.87$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 내용을 동일하게 하되 중년 성인에게 적절하도록 문항의 표현과 지시문을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신뢰도는  $\alpha=.86$ 이었다(표 2 참고).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는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7개 문항의<sup>3)</sup> 신뢰도는  $\alpha=.60$ 이었

#### 3)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 측정 문항:

- ( ) 1. 은퇴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도리이다.
- ( ) 2. 내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기꺼이 내 생활을 책임지려할 것이다.
- (-) 3. 은퇴 후에 자녀들을 믿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
- (-) 4. 은퇴 후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 ( ) 5. 늙어 은퇴한 후에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반드시 헌신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표 2. 노부모 부양 질문지의 변인 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 수	Cronbach $\alpha$
가정의 구조적 환경		
학력	1	-
가정경제수준	1	-
직업	1	-
사회계층 지각	1	-
맞벌이 여부	1	-
가족관계		
배우자 정서적 지원	6	.95
자녀 정서적 지원	6	.88
자녀를 위한 희생	6	.86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	6	.67
자기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6	.89
부부관계효능감	6	.88
노부모부양효능감	6	.84
행복		
노부모 부양	15	.90
노부모 부양		
효도 마음	3	.85
노부모 부양행동	3	.86
부모님 용돈	1	-
식사 횟수	1	-
대화 시간	1	-

다. 문항-전체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7번 문항의 문항 전체 상관계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이 문항만 제외하고 신뢰도를 구한 결과 6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67$ 이었다(표 2 참고). 6개 문항 중에서 역산문항(문항 예: 내가

- (-) 6.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가 보살필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 (-) 7.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사회 복지기관에서 도와줄 것이다.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가 보살필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이 3개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분석은 6개 문항(문항 예: 내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기꺼이 내 생활을 책임지려 할 것이다)으로 진행되었다.

심리특성으로는 자기효능감과 행복 변인이 측정되었다. 자기효능감은 3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했으며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전혀 잘 할 수 없다'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값이 클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작한 성인용 어려움극복효능감(Resiliency of self-efficacy) 7문항을 박영신(1997)이 번역해서 고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alpha=.91$ 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박영신과 이경란(2014)이 6개 문항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실시하였을 때, 회사원 집단은  $\alpha=.83$ , 교사 집단은  $\alpha=.89$ 의 값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이경란(2014)의 질문지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초·중·고 대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alpha=.89$ 이었다(표 2 참고).

부부관계효능감은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부부간에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와 같이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적으로 잘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6개였으며,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도는  $\alpha=.88$ 이었다.

노부모부양효능감도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당신은 노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해 드릴 수 있습니까?'와 같이 노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문항 수는 6개였고, 신뢰도는  $\alpha=.84$ 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행복 변인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제작

한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88$ , 동일한 질문지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박영신과 김의철(2011)연구에서  $\alpha=.91$ 이었고, 이 연구에서도  $\alpha=.90$ 으로 양호하였다(표 2 참고).

노부모 부양은 효도 마음, 노부모 부양행동, 부모님 용돈, 식사 횟수, 대화 시간의 5개 하위변인으로 측정했다. 효도 마음 변인은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제작한 효도 변인의 문항 표현을 수정하여 중년 성인의 노부모에 대한 효도 마음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작했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0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부모의 자녀 효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90$ 이었다. 이 연구의 문항 수는 동일하게 3개였으며, 중년 성인 대상의 신뢰도는  $\alpha=.85$ 였다(표 2 참고).

노부모 부양행동 변인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효도 질문지(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alpha=.90$ )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평소에 노부모를 얼마나 잘 부양하는지를 질문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문항 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노부모님을 잘 부양한다), 중년 성인 대상 신뢰도는  $\alpha=.86$ 이었다(표 2 참고).

부모님 용돈 변인은 중년 성인의 월수입 중에서 한 달 평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차지하는 금액에 100을 곱함으로써 %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한 달 평균 수입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돈의 비율이다. 한 달 평균 수입과 부모님께 드리는 한 달 평균 용돈은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식사 횟수 변인은 한 달 평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대화 시간 변인은 한 달 평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인데, 시간 단위로 응답자

가 기록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한 문항으로는 (1)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 (2)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 (3)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의 3개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배경정보에 가족형태, 연령(본인, 노부모), 성별, 노부모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직접 기록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대가족 여부를, 그외 문항은 답지를 선택하게 했다.

#### 실시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 성인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중년 성인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 경우는 표집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년 성인 중에서 1인 가구나 1세대 가구는 제외하고,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세대와 3세대 가구의 중년 성인 표집을 위해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부모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중년 성인으로 표집된 부모에게 질문지에 대한 소개글과 함께 질문지 응답에 감사하는 선물을 동봉하였다. 가정에서 부모용 질문지를 받아온 학생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 질문지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유롭게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지를 실시하여 수거하는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소요되었다.

수거된 1,730명의 질문지 중에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40명과, 부모님의 생존여부를 밝히지 않는 불성실한 응답태도를 보인 13명을 제외함으로써, 총 1,313명을 선정하였다. 중

년 성인 경우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과거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족형태가 2세대 핵가족이든, 3세대 대가족이든 모두, 현재 노부모 중에서 한 분 이상 살아계심으로써, 실제적으로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가 계신 경우로서 동질적이 되도록 하였다.

1,313명 분석대상의 연령은 30대 196명, 40대 862명, 50대 244명, 60대 5명, 무응답 6명이었다. 60대는 중년이라기보다는 노년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연령을 밝히지 않는 불성실한 응답태도를 보인 중년 성인 6명의 자료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1,302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 연구의 핵심 독립변인인 가족형태(핵가족, 대가족)를 밝히지 않은 4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58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응답자가 질적으로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반응항 내용을 그대로 모두 코딩하였다. 동일한 질적 반응끼리 묶어 항목을 구성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념적으로 적절한 이름을 붙였다. 모든 항목을 명명한 뒤에,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각각의 범주를 개념적으로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다. 항목과 범주의 명명은 연구자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의 토착심리 분석과정에 참여해온 박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20여명이 10여 차례의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항목명과 범주명을 확정한 뒤에, 이러한 개념 틀에 기초하여, 각각의 질적인 응답이 모두 숫자로 코딩되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입력한 자료로 빈도분석이 실시되었다. 빈도분석은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의 세 가지에 대해 진행했다. 전체집단과 더불어 하위집단별(가족형태, 성별)로도 빈도분석을 했다.

질적인 분석에 대해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95.1%로 높았다. 또한 Kappa 계수를 산출한 결과 .95로서, 두 채점자간 합치도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 .75(성태제, 20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채점자간 신뢰도 산출을 위한 재코딩은 노부모 부양의 토착심리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한 전문가가 하였다.

가족형태별로 가정의 구조적 환경,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행복, 노부모 부양에서의 차이를  $\chi^2$  검증 및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9.0이었다.

## 연구결과

### 가족형태별 구조적 가정환경의 차이

가족형태별 가정의 구조적 가정환경의 차이를 학력, 가정경제수준, 직업, 사회계층지각, 맞벌이 여부의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의 학력을 빈도분석 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은 9명으로서 응답자의 0.7%에 해당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중학교 졸업과 합하여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학력 하위집단을 중분류로 재정리하여 가족형태별 학력의 차이를  $\chi^2$  검증한 결과 표 3이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 = .043$ 으로 거의 .05에 가까운 값을 보임으로써, 유의도 수준이

표 3. 가족형태별 학력의 차이  $\chi^2$  검증

	가족형태		전체(%)
	핵가족(%)	대가족(%)	
중졸 이하	35 ( 3.2)	7 ( 4.8)	42 ( 3.4)
고졸	577 (52.2)	92 (62.6)	669 (53.4)
대졸	444 (40.1)	42 (28.6)	486 (38.8)
대학원졸	50 ( 4.5)	6 ( 4.1)	56 ( 4.5)
전체	1106 (100.0)	147 (100.0)	1253 (100.0)

$\chi^2=8.16, df=3, p=.043$

높지 않았다. 핵가족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 중졸 이하의 순서로 나타났고, 대가족은 고졸, 대졸, 중졸 이하, 대학원졸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므로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학력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고졸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대졸이 많은 점에서 일치했으며, 두 집단 모두 고졸과 대졸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점에서 유사하므로, 학력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가정경제수준을 빈도분석 하였을 때, 최하 집단은 응답자의 1.8%, 최상 집단은 응답자의 0.1%로 극소수였다. 따라서 최하집단을 하집단에 포함하고, 최상집단을 상집단에 포함하여, 가정경제수준의 다섯 개 하위집단(최하, 하, 중, 상, 최상)을 세 개 하위집단(하, 중, 상)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경제수준을 중분류로 재정리하여 가족형태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chi^2$  검증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핵가족과 대가족은 가정경제수준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의 전반적인 가정경제수준을 보면, 중간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으로서 2/3를 넘었다. 그 다음으로

표 4. 가족형태별 가정경제수준의 차이  $\chi^2$  검증

	가족형태		전체(%)
	핵가족(%)	대가족(%)	
하	198 (17.9)	19 (12.9)	217 (17.3)
중	813 (73.5)	116 (78.9)	929 (74.1)
상	95 ( 8.6)	12 ( 8.2)	107 ( 8.5)
전체	1106 (100.0)	147 (100.0)	1253 (100.0)

$\chi^2=2.40, df=4, p=.302$

하 집단이 10명 중에 약 2명 정도였고, 상집단은 1명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가정경제수준이나 사회계층 인식은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로서 월소득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핵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4,309,300원이고, 대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4,405,900원이었다.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약 10만원 정도 많았지만, 가족형태별 월소득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37, p>.05$ ).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별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분석한 표 4와 일치한다.

분석대상의 직업 차이를  $\chi^2$  검증한 결과가 표 5이다. 가족형태에 따라 직업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핵가족과 대가족 여부에 따라 중년 성인의 직업에 차이가 없었다. 전체집단을 보면 판매/서비스직(25.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무직/전업주부, 사무/관리직의 순서였는데, 세 가지 직업유형 모두 25%에 가까운 유사한 비율이었다. 세 직업유형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직, 고위관리/전문직의 순서였는데, 각각 10~15%의 비율을 보였다.

표 5. 가족형태별 직업의 차이  $\chi^2$  검증

	가족형태		전체(%)
	핵가족(%)	대가족(%)	
무직/전업주부	275 (25.2)	29 (20.1)	304 (24.6)
노동/생산직	144 (13.2)	25 (17.4)	169 (13.7)
판매/서비스직	269 (24.7)	41 (28.5)	310 (25.1)
사무/관리직	266 (24.4)	28 (19.4)	294 (23.8)
고위관리/전문직	137 (12.6)	21 (14.6)	158 (12.8)
전체	1091 (100.0)	144 (100.0)	1235 (100.0)

$\chi^2=5.39, df=4, p=.250$

사회계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극빈층이 0.9%이고, 최상류층이 0.2%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극빈층을 하류층에 포함하고, 최상류층을 상류층에 포함하였다. 사회계층을 하, 중, 상의 세 하위집단으로 재분류하여, 가족형태별로 사회계층 지각의 차이를  $\chi^2$  검증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핵가족이나 대가족 중년 성인은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10명 중에 약 9명 정도가 중류층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중에서 1명이었으며,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극소수

표 6. 가족형태별 사회계층지각의 차이  $\chi^2$  검증

사회계층지각	가족형태		전체(%)
	핵가족(%)	대가족(%)	
하류층	112 (10.2)	13 ( 8.9)	125 (10.0)
중류층	971 (88.0)	131 (89.7)	1102 (88.2)
상류층	20 ( 1.8)	2 ( 1.4)	22 ( 1.8)
전체	1103 (100.0)	146 (100.0)	1249 (100.0)

$\chi^2=.39, df=2, p=.824$

표 7. 가족형태별 맞벌이 여부의 차이  $\chi^2$  검증

맞벌이 여부	가족형태		전체(%)
	핵가족(%)	대가족(%)	
맞벌이	596 (54.1)	78 (53.4)	674 (54.0)
외벌이	505 (45.9)	68 (46.6)	573 (46.0)
전체	1101 (100.0)	146 (100.0)	1247 (100.0)

$\chi^2=.03, df=1, p=.872$

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회계층지각과 가정경제수준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r=.54$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지각과 가정경제수준 변인이 정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두 변인간 다중공선성도 시사된다. 이러한 사실이 표 4와 표 6에 나타나는 결과 패턴의 유사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7을 보면,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약간 더 많았으나, 두 집단이 각각 50% 내외로 비슷했다. 가족형태별로 맞벌이 여부를  $\chi^2$  검증했을 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핵가족과 대가족 집단 모두 맞벌이와 외벌이가 각각 50% 내외로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핵가족이나 대가족으로 생활하는 중년 성인은 맞벌이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별 성별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의 차이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관계 관련 변인의 전체 집단 평균을 보면, 배우자 정서적 지원,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자녀를 위한 희생은 중간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은퇴 후

표 8. 가족형태별 성별 가족관계와 심리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가족형태		성별		전체(%) M(SD)
	핵가족	대가족	남	여	
	M(SD)	M(SD)	M(SD)	M(SD)	
가족관계					
배우자 정서적 지원	3.66( .97)	3.77(1.01)	3.82( .89)	3.54(1.03)	3.67( .97)
자녀 정서적 지원	3.73( .70)	3.92( .77)	3.61( .75)	3.88( .65)	3.75( .71)
자녀를 위한 희생	3.86( .69)	4.01( .65)	3.82( .71)	3.93( .67)	3.88( .69)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	2.39( .64)	2.50( .61)	2.44( .66)	2.37( .63)	2.40( .64)
자기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3.57( .67)	3.77( .67)	3.68( .66)	3.51( .68)	3.59( .67)
부부관계효능감	3.51( .70)	3.67( .79)	3.52( .69)	3.54( .73)	3.53( .71)
노부모부양효능감	3.30( .65)	3.44( .65)	3.35( .66)	3.29( .65)	3.32( .65)
행복	3.50( .60)	3.63( .66)	3.51( .60)	3.53( .62)	3.52( .61)

자녀에 대한 기대는 중간 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성인의 자녀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에 비해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는 낮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세 하위변인의 평균을 보면,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노부모부양효능감의 평균이 모두 중간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행복 변인도 자기효능감 변인과 같은 수준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9는 가족형태별 성별 가족관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배우자 정서적 지원은 성별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8에서 성별 평균을 보면, 중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보다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자녀 정서적 지원은 가족형태

별과 성별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참고). 표 8에 제시된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가족형태별로는 대가족이, 성별로는 중년 여성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은 가족형태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참고). 표 8을 보면 가족형태 중에서 대가족의 평균이 더 높았다.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는 가족형태별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참고).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평균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자녀에 대해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해 더욱 희생적이었다. 또한 핵가족보다 대가족 중년 성인이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즉 은퇴한 후에 자녀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가 잘

표 9. 가족형태별 성별 가족관계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배우자 정서적 지원	주효과	가족형태별(1)	.84	1	.84	.90
		성별(2)	15.64	1	15.64	16.81***
	상호작용효과	(1) × (2)	1.10	1	1.10	1.18
자녀 정서적 지원	주효과	가족형태별(1)	5.76	1	5.76	11.95***
		성별(2)	7.32	1	7.32	15.18***
	상호작용효과	(1) × (2)	.30	1	.30	.62
자녀를 위한 희생	주효과	가족형태별(1)	3.44	1	3.44	7.26**
		성별(2)	1.47	1	1.47	3.10
	상호작용효과	(1) × (2)	.00	1	.00	.01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	주효과	가족형태별(1)	1.70	1	1.70	4.15*
		성별(2)	.00	1	.00	.00
	상호작용효과	(1) × (2)	.96	1	.96	2.35

\*  $p < .05$ , \*\*  $p < .01$ , \*\*\*  $p < .001$

보살피 줄 것으로 의지하는 등,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나타내었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남편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했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아내가 더 많이 하였다.

가족형태별 성별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0이다. 어려움극복효능감 경우에, 가족형태별 성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8을 보면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중년 남성이 여성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더 높았다. 부부관계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0 참고). 평균을 보면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두 하위변인에서 모두 더 높았다(표 8 참고). 가족형태별 행복의 차이도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참고).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행복의 평균이

높았다(표 8 참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더욱 행복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더 높았다. 핵가족보다는 대가족 경우에, 가족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상황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을 개발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의 차이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효도 마음 평균은 3.37로서, 효도 마음이 보통보다 약간 강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행동의 경우

표 10. 가족형태별 성별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어려움극복효능감	주효과	가족형태별(1)	4.29	1	4.29	9.69**
		성별(2)	3.14	1	3.14	7.08**
	상호작용효과	(1) × (2)	.01	1	.01	.02
부부관계효능감	주효과	가족형태별(1)	3.00	1	3.00	5.89*
		성별(2)	.01	1	.01	.01
	상호작용효과	(1) × (2)	.10	1	.10	.20
노부모부양효능감	주효과	가족형태별(1)	2.51	1	2.51	5.92*
		성별(2)	.22	1	.22	.51
	상호작용효과	(1) × (2)	.07	1	.07	.16
행복	주효과	가족형태별(1)	2.12	1	2.12	5.73*
		성별(2)	.07	1	.07	.18
	상호작용효과	(1) × (2)	.43	1	.43	1.17

\* $p < .05$ , \*\* $p < .01$

표 11.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노부모 부양	가족형태		성별		전체(%) M(SD)
	핵가족	대가족	남	여	
	M(SD)	M(SD)	M(SD)	M(SD)	
효도 마음	3.36(.79)	3.50(.79)	3.43(.80)	3.32(.78)	3.37(.79)
노부모 부양행동	2.97(.83)	3.31(.80)	3.00(.84)	3.02(.83)	3.01(.84)
부모님 용돈	2.43(3.64)	4.31(5.97)	2.99(4.42)	2.33(3.59)	2.66(4.04)
식사 횟수	2.16(4.85)	12.50(17.12)	4.05(9.22)	2.75(6.93)	3.39(8.16)
대화 시간	5.27(8.27)	14.56(26.98)	6.40(13.93)	6.42(11.05)	6.41(12.57)

는 평균이 3.01로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중년 성인이 효도 마음보다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실천이 적은 경향이다. 노부모 부양행동으로서 전체 집단의 부모님 용돈 평균이 2.66이었는데, 이는 한 달 수입 중에 평균 2.66%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식사 횟수의 평균은 3.39로서, 중년 성인이 한 달에 3~4회 정도 부모님과 식사를 함을 의미한다. 대화 시간의 평균은 6.41로서, 중년 성인이 한 달 평균 부모님과 6~7시간 정도 대화함을 알 수 있다.

표 12는 가족형태별 성별 효도 마음과 노부

표 12. 가족형태별 성별 효도 마음과 노부모 부양행동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효도 마음	주효과	가족형태별(1)	2.59	1	2.59	4.13*
		성별(2)	.49	1	.49	.79
	상호작용효과	(1) × (2)	.23	1	.23	.36
노부모 부양행동	주효과	가족형태별(1)	14.62	1	14.62	21.26***
		성별(2)	.01	1	.01	.02
	상호작용효과	(1) × (2)	.12	1	.12	.17

\*  $p < .05$ , \*\*\*  $p < .001$

모 부양행동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효도 마음 경우에 가족형태별로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가족이 높은 평균을 보였다(표 11 참고). 노부모 부양행동 경우에는 가족형태별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가족이 훨씬 평균이 높았다(표 11 참고). 그러므로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도 더 있고, 실제로 노부모 부양행동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표 13은 가족형태별 성별 한 달 평균 부모님 용돈, 식사 횟수, 대화 시간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부모님 용돈은 가족형태별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훨씬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표 11 참고). 대가족에서는 한 달 수입의 약 4~5%를, 핵가족에서는 한 달 수입의 약 2~3%를 노부모에게 드리는 차이가 있었다.

한 달 평균 식사 횟수는 가족형태별 성별로 상호작용효과와 가족형태별 주효과 및 성별 주효과가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3 참고). 표 11에서 가족형태별 성별 평균을 보면,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중년 남성이 여성보다 식사 횟수가 더 많았다. 대가족에서는 한 달 평균 13회 정도, 핵가족에서는 한 달 평균 2회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중년 남성이 한 달 평균 4회 정도로서 2~3회 정도를 보인 중년 여성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가족형태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 1을 보면, 핵가족에서는 중년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대가족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핵가족보다 식사 횟수가 많았는데, 특히 중년 남성이 현저하게 많았다. 가족형태별 대화 시간의 차이도  $p < .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하였다(표 13 참고). 대가족에서는 한 달 평균 14~15시간을 부모님과 대화하는데 비해, 핵가족에서는 5~6시간 정도로 훨씬 적었다(표 11 참고).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한 달 수입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비율이 높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았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가족형태별 성별 차이가 현저하였다. 핵가족의 중년 성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한 달 평균 부모님과 식사 횟수가 2회 정도인데 비해, 대가족 중년 여성은 핵가족보다 많아서

표 13. 가족형태별 성별 한 달 평균 부모님 용돈, 식사 횟수, 대화 시간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부모님 용돈	주효과	가족형태별(1)	287.30	1	287.30	18.03***
		성별(2)	37.34	1	37.34	2.34
	상호작용효과	(1) × (2)	1.11	1	1.11	.07
식사 횟수	주효과	가족형태별(1)	9077.28	1	9077.28	166.11***
		성별(2)	785.17	1	785.17	14.37***
	상호작용효과	(1) × (2)	666.72	1	666.72	12.20***
대화 시간	주효과	가족형태별(1)	8194.90	1	8194.90	55.02***
		성별(2)	2.74	1	2.74	.02
	상호작용효과	(1) × (2)	66.49	1	66.49	.4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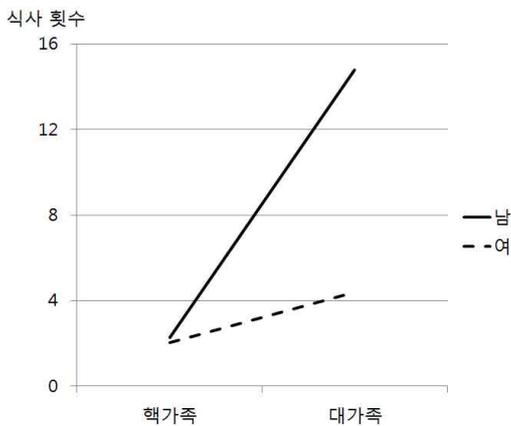


그림 1. 가족형태별 성별 한 달 평균 식사하는 횟수의 상호작용

한 달에 4회 정도를, 남성 경우는 한 달에 평균 15회 이상을 부모님과 식사하였다.

####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어

렵고 힘든 점,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전체 집단만이 아니라, 가족형태별로도 분석하고, 각각의 가족형태 내에서 성별로도 분석하였다.

표 14는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집단을 보면, 마음 편하게 해드림이 3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화함(18.0%)이었으며, 보살피 드림(11.1%), 모시고 사는 것(11.0%)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다. 자주 찾아뵙(9.4%)도 모시고 사는 것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이외에 경제적 지원, 순종함, 함께 시간 보냄이 포함되었다.

즉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인 예로 중년 성인 10명 중의 1명 정도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반응하였지만, 이보다도 마음 편하게 해드림은 3배 이상의 높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하거나 보살피 드리는 것이 모시고 사는 것 이상으로 대표적인 노부모 부양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표 14.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인식

	전체(%)	핵가족			대가족		
		남(%)	여(%)	계(%)	남(%)	여(%)	계(%)
<b>1. 마음 편하게 해드림</b>	<b>399(34.4)</b>	<b>150(31.2)</b>	<b>189(34.9)</b>	<b>339(33.1)</b>	<b>30(40.0)</b>	<b>30(49.2)</b>	<b>60(44.1)</b>
①마음 편하게 해드림	226(19.5)	91(18.9)	104(19.2)	195(19.1)	13(17.3)	18(29.5)	31(22.8)
②편하게 해드림	66( 5.7)	22( 4.6)	31( 5.7)	53( 5.2)	9(12.0)	4( 6.6)	13( 9.6)
③이해해드림	59( 5.1)	18( 3.7)	32( 5.9)	50( 4.9)	3( 4.0)	6( 9.8)	9( 6.6)
④가정화목	30( 2.6)	11( 2.3)	14( 2.6)	25( 2.4)	4( 5.3)	1( 1.6)	5( 3.7)
⑤의견존중	18( 1.6)	8( 1.7)	8( 1.5)	16( 1.6)	1( 1.3)	1( 1.6)	2( 1.5)
<b>2. 대화함</b>	<b>209(18.0)</b>	<b>84(17.5)</b>	<b>106(19.6)</b>	<b>190(18.6)</b>	<b>11(14.7)</b>	<b>8(13.1)</b>	<b>19(14.0)</b>
①대화함	149(12.9)	64(13.3)	68(12.5)	132(12.9)	10(13.3)	7(11.5)	17(12.5)
②자주 연락함	26( 2.2)	13( 2.7)	13( 2.4)	26( 2.5)	-	-	-
③말동무	18( 1.6)	3( 0.6)	14( 2.6)	17( 1.7)	-	1( 1.6)	1( 0.7)
④이야기 들어드림	16( 1.4)	4( 0.8)	11( 2.0)	15( 1.5)	1( 1.3)	-	1( 0.7)
<b>3. 보살펴드림</b>	<b>129(11.1)</b>	<b>53(11.0)</b>	<b>59(10.9)</b>	<b>112(10.9)</b>	<b>9(12.0)</b>	<b>8(13.1)</b>	<b>17(12.5)</b>
①관심 가짐	34( 2.9)	16( 3.3)	13( 2.4)	29( 2.8)	4( 5.3)	1( 1.6)	5( 3.7)
②원하시는 것 해드림	29( 2.5)	9( 1.9)	18( 3.3)	27( 2.6)	1( 1.3)	1( 1.6)	2( 1.5)
③정성껏 모심	25( 2.2)	9( 1.9)	12( 2.2)	21( 2.1)	3( 4.0)	1( 1.6)	4( 2.9)
④보살펴드림	24( 2.1)	12( 2.5)	10( 1.8)	22( 2.2)	-	2( 3.3)	2( 1.5)
⑤건강 챙겨드림	17( 1.5)	7( 1.5)	6( 1.1)	13( 1.3)	1( 1.3)	3( 4.9)	4( 2.9)
<b>4. 모시고 사는 것</b>	<b>128(11.0)</b>	<b>69(14.3)</b>	<b>49( 9.0)</b>	<b>118(11.5)</b>	<b>6( 8.0)</b>	<b>4( 6.6)</b>	<b>10( 7.4)</b>
<b>5. 자주 찾아뵈</b>	<b>109( 9.4)</b>	<b>47( 9.8)</b>	<b>59(10.9)</b>	<b>106(10.4)</b>	<b>2( 2.7)</b>	<b>1( 1.6)</b>	<b>3( 2.2)</b>
①자주 찾아뵈	60( 5.2)	32( 6.7)	26( 4.8)	58( 5.7)	2( 2.7)	-	2( 1.5)
②가까운 곳에 거주	49( 4.2)	15( 3.1)	33( 6.1)	48( 4.7)	-	1( 1.6)	1( 0.7)
<b>6. 경제적 지원</b>	<b>62( 5.3)</b>	<b>26( 5.4)</b>	<b>30( 5.5)</b>	<b>56( 5.5)</b>	<b>4( 5.3)</b>	<b>2( 3.3)</b>	<b>6( 4.4)</b>
①경제적 지원	35( 3.0)	15( 3.1)	17( 3.1)	32( 3.1)	2( 2.7)	1( 1.6)	3( 2.2)
②용돈 드림	27( 2.3)	11( 2.3)	13( 2.4)	24( 2.3)	2( 2.7)	1( 1.6)	3( 2.2)
<b>7. 순종함</b>	<b>62( 5.3)</b>	<b>26( 5.4)</b>	<b>24( 4.4)</b>	<b>50( 4.9)</b>	<b>8(10.7)</b>	<b>4( 6.6)</b>	<b>12( 8.8)</b>
①순종함	30( 2.6)	10( 2.1)	14( 2.6)	24( 2.3)	3( 4.0)	3( 4.9)	6( 4.4)
②효도함	18( 1.6)	9( 1.9)	6( 1.1)	15( 1.5)	3( 4.0)	-	3( 2.2)
③부모공경	14( 1.2)	7( 1.5)	4( 0.7)	11( 1.1)	2( 2.7)	1( 1.6)	3( 2.2)
<b>8. 함께 시간 보냄</b>	<b>26( 2.2)</b>	<b>11( 2.3)</b>	<b>14( 2.6)</b>	<b>25( 2.4)</b>	<b>1( 1.3)</b>	<b>-</b>	<b>1( 0.7)</b>
<b>9. 기타</b>	<b>35( 3.0)</b>	<b>15( 3.1)</b>	<b>12( 2.2)</b>	<b>27( 2.6)</b>	<b>4( 5.3)</b>	<b>4( 6.6)</b>	<b>8( 5.9)</b>
①간섭 없음	11( 0.9)	4( 0.8)	5( 0.9)	9( 0.9)	1( 1.3)	1( 1.6)	2( 1.5)
②모름	8( 0.7)	5( 1.0)	1( 0.2)	6( 0.6)	1( 1.3)	1( 1.6)	2( 1.5)
③요양시설 이용	8( 0.7)	2( 0.4)	5( 0.9)	7( 0.7)	1( 1.3)	-	1( 0.7)
④기타	8( 0.7)	4( 0.8)	1( 0.2)	5( 0.5)	1( 1.3)	2( 3.3)	3( 2.2)
총합계	1159(100.0)	481(100.0)	542(100.0)	1023(100.0)	75(100.0)	61(100.0)	136(100.0)

사회의 중년 성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노부모 부양이라고 인식하지만, 그러한 전통적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부모 부양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고, 노부모에게 말동무가 되어 드리며, 정성껏 모시며 보살펴드리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며, 모시고 살지 않아도 자주 찾아뵙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두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 경우에 마음 편하게 해드림, 대화함, 모시고 사는 것, 보살펴드림, 자주 찾아뵙는 순서로, 대가족 경우에 마음 편하게 해드림, 대화함, 보살펴드림, 순종함, 모시고 사는 것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핵가족과 대가족의 중년 성인 모두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이 가장 좋은 노부모 부양방법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두 번째로 대화하는 것인 점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핵가족에서는 모시고 사는 것이 세 번째(11.5%)인 반면에, 대가족에서는 다섯 번째(7.4%)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핵가족의 중년 성인이 모시고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핵가족에서 이러한 반응 경향이 나타난 것은 핵가족의 중년 남성이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응답(14.3%)을 여성보다 많이 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15는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집단 분석 결과를 보면, 의견차이(28.6%)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로서, 이 두 범주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간 갈등, 자유롭지 못

함이 각각 14%로 같은 비율이었으며, 이외에 건강문제, 보살펴드리지 못함, 힘든 점 없음, 함께하는 시간 부족과 같은 범주가 포함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나타난 의견 차이에는 세대차이, 성격차이, 생활방식 차이, 마음 헤아리기, 의사소통 어려움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성인이 노부모 부양에서 가장 힘든 점은 노부모와 의견차이 및 경제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가족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핵가족과 대가족 모두 의견차이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가족간 갈등과 자유롭지 못함의 반응율이 비슷한 점에서 전체 집단 반응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 다음 범주에서는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남성은 의견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간 갈등, 자유롭지 못함의 순서로, 여성은 의견차이, 경제적 문제, 자유롭지 못함, 가족간 갈등의 순서로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의견 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점에서 성별로 일치했으나, 그 다음으로 남성은 가족간 갈등을, 여성은 자유롭지 못함을, 노부모 부양의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핵가족과 대가족에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노부모를 부양하면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다는 인식을 하는 경향을 시사하나,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범주 및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을 분석한 결과가 표 16이다. 전체 집단을 분석했을 때,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31.4%)이 10명 중에서 3명 정도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가정화목(26.4%)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마음이 편함, 의지가 됨, 자식의 도리를 다함이 각각 10%

표 15.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한 인식

	전체(%)	핵가족			대가족		
		남(%)	여(%)	계(%)	남(%)	여(%)	계(%)
<b>1. 의견차이</b>	<b>318(28.6)</b>	<b>117(26.4)</b>	<b>162(30.5)</b>	<b>279(28.6)</b>	<b>23(30.3)</b>	<b>16(25.8)</b>	<b>39(28.3)</b>
①의견차이	113(10.2)	35( 7.9)	60(11.3)	95( 9.8)	8(10.5)	10(16.1)	18(13.0)
②세대차이	84( 7.6)	32( 7.2)	41( 7.7)	73( 7.5)	8(10.5)	3( 4.8)	11( 8.0)
③성격차이	33( 3.0)	11( 2.5)	18( 3.4)	29( 3.0)	2( 2.6)	2( 3.2)	4( 2.9)
④생활방식 차이	32( 2.9)	14( 3.2)	18( 3.4)	32( 3.3)	-	-	-
⑤마음 헤아리기	31( 2.8)	18( 4.1)	11( 2.1)	29( 3.0)	2( 2.6)	-	2( 1.4)
⑥의사소통 어려움	25( 2.2)	7( 1.6)	14( 2.6)	21( 2.2)	3( 3.9)	1( 1.6)	4( 2.9)
<b>2. 경제적 문제</b>	<b>253(22.8)</b>	<b>111(25.1)</b>	<b>113(21.3)</b>	<b>224(23.0)</b>	<b>17(22.4)</b>	<b>12(19.4)</b>	<b>29(21.0)</b>
①경제적 어려움	231(20.8)	102(23.0)	103(19.4)	205(21.0)	16(21.1)	10(16.1)	26(18.8)
②가정형편	12( 1.1)	6( 1.4)	4( .8)	10( 1.0)	1( 1.3)	1( 1.6)	2( 1.4)
③의료비 문제	10( .9)	3( .7)	6( 1.1)	9( .9)	-	1( 1.6)	1( .7)
<b>3. 가족간 갈등</b>	<b>157(14.1)</b>	<b>84(19.0)</b>	<b>55(10.4)</b>	<b>139(14.3)</b>	<b>9(11.8)</b>	<b>9(14.5)</b>	<b>18(13.0)</b>
①가족간 갈등	66( 5.9)	31( 7.0)	29( 5.5)	60( 6.2)	3( 3.9)	3( 4.8)	6( 4.3)
②고부간 갈등	45( 4.0)	31( 7.0)	8( 1.5)	39( 4.0)	3( 3.9)	3( 4.8)	6( 4.3)
③부모님 고집	21( 1.9)	9( 2.0)	9( 1.7)	18( 1.8)	1( 1.3)	2( 3.2)	3( 2.2)
④배우자와의 갈등	16( 1.4)	12( 2.7)	2( .4)	14( 1.4)	2( 2.6)	-	2( 1.4)
⑤간섭	9( .8)	1( .2)	7( 1.3)	8( .8)	-	1( 1.6)	1( .7)
<b>4. 자유롭지 못함</b>	<b>156(14.0)</b>	<b>44( 9.9)</b>	<b>94(17.7)</b>	<b>138(14.2)</b>	<b>7( 9.2)</b>	<b>11(17.7)</b>	<b>18(13.0)</b>
①자유롭지 못함	69( 6.2)	18( 4.1)	44( 8.3)	62( 6.4)	3( 3.9)	4( 6.5)	7( 5.1)
②심리적 부담	28( 2.5)	10( 2.3)	15( 2.8)	25( 2.6)	1( 1.3)	2( 3.2)	3( 2.2)
③불편함	27( 2.4)	7( 1.6)	14( 2.6)	21( 2.2)	2( 2.6)	4( 6.5)	6( 4.3)
④시간 부족	26( 2.3)	9( 2.0)	16( 3.0)	25( 2.6)	-	1( 1.6)	1( .7)
⑤집안일 증가	6( .5)	-	5( .9)	5( .5)	1( 1.3)	-	1( .7)
<b>5. 건강문제</b>	<b>91( 8.2)</b>	<b>37( 8.4)</b>	<b>40( 7.5)</b>	<b>77( 7.9)</b>	<b>8(10.5)</b>	<b>6( 9.7)</b>	<b>14(10.1)</b>
①편찮으심	50( 4.5)	17( 3.8)	26( 4.9)	43( 4.4)	4( 5.3)	3( 4.8)	7( 5.1)
②병간호	28( 2.5)	12( 2.7)	11( 2.1)	23( 2.4)	3( 3.9)	2( 3.2)	5( 3.6)
③부모님의 건강관리	13( 1.2)	8( 1.8)	3( .6)	11( 1.1)	1( 1.3)	1( 1.6)	2( 1.4)
<b>6. 보살펴드리지 못함</b>	<b>61( 5.5)</b>	<b>16( 3.6)</b>	<b>39( 7.3)</b>	<b>55( 5.6)</b>	<b>3( 3.9)</b>	<b>3( 4.8)</b>	<b>6( 4.3)</b>
①식사 챙기기	34( 3.1)	6( 1.4)	24( 4.5)	30( 3.1)	1( 1.3)	3( 4.8)	4( 2.9)
②보살펴드리지 못함	12( 1.1)	3( .7)	8( 1.5)	11( 1.1)	1( 1.3)	-	1( .7)
③잘 못해드림	10( .9)	4( .9)	5( .9)	9( .9)	1( 1.3)	-	1( .7)
④힘듦	5( .4)	3( .7)	2( .4)	5( .5)	-	-	-
<b>7. 힘든 점 없음</b>	<b>36( 3.2)</b>	<b>17( 3.8)</b>	<b>12( 2.3)</b>	<b>29( 3.0)</b>	<b>5( 6.6)</b>	<b>2( 3.2)</b>	<b>7( 5.1)</b>
<b>8. 함께하는 시간 부족</b>	<b>35( 3.1)</b>	<b>15( 3.4)</b>	<b>14( 2.6)</b>	<b>29( 3.0)</b>	<b>3( 3.9)</b>	<b>3( 4.8)</b>	<b>6( 4.3)</b>
①직장생활 때문	15( 1.3)	5( 1.1)	7( 1.3)	12( 1.2)	1( 1.3)	2( 3.2)	3( 2.2)
②함께하는 시간 부족	10( .9)	4( .9)	3( .6)	7( .7)	2( 2.6)	1( 1.6)	3( 2.2)
③거주지가 다름	10( .9)	6( 1.4)	4( .8)	10( 1.0)	-	-	-
<b>9. 기타</b>	<b>5( .4)</b>	<b>2( .5)</b>	<b>2( .4)</b>	<b>4( .4)</b>	<b>1( 1.3)</b>	<b>-</b>	<b>1( .7)</b>
①모름	3( .3)	2( .5)	1( .2)	3( .3)	-	-	-
②기타	2( .2)	-	1( .2)	1( .1)	1( 1.3)	-	1( .7)
총합계	1112(100.0)	443(100.0)	531(100.0)	974(100.0)	76(100.0)	62(100.0)	138(100.0)

표 16. 가족형태별 성별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에 대한 인식

	전체(%)	핵가족			대가족		
		남(%)	여(%)	계(%)	남(%)	여(%)	계(%)
<b>1.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b>	<b>359(31.4)</b>	<b>150(31.7)</b>	<b>170(31.8)</b>	<b>320(31.8)</b>	<b>21(26.9)</b>	<b>18(30.0)</b>	<b>39(28.3)</b>
①자녀교육	160(14.0)	67(14.2)	78(14.6)	145(14.4)	9(11.5)	6(10.0)	15(10.9)
②예절교육	54( 4.7)	22( 4.7)	27( 5.1)	49( 4.9)	3( 3.8)	2( 3.3)	5( 3.6)
③인성교육	47( 4.1)	16( 3.4)	27( 5.1)	43( 4.3)	-	4( 6.7)	4( 2.9)
④웃어른 공경	44( 3.8)	18( 3.8)	17( 3.2)	35( 3.5)	4( 5.1)	5( 8.3)	9( 6.5)
⑤자녀에게 모범이 됨	37( 3.2)	17( 3.6)	16( 3.0)	33( 3.3)	3( 3.8)	1( 1.7)	4( 2.9)
⑥가정교육	17( 1.5)	10( 2.1)	5( .9)	15( 1.5)	2( 2.6)	-	2( 1.4)
<b>2. 가정화목</b>	<b>302(26.4)</b>	<b>139(29.4)</b>	<b>130(24.3)</b>	<b>269(26.7)</b>	<b>19(24.4)</b>	<b>14(23.3)</b>	<b>33(23.9)</b>
①가정화목	107( 9.3)	41( 8.7)	45( 8.4)	86( 8.5)	13(16.7)	8(13.3)	21(15.2)
②가족유대감	57( 5.0)	28( 5.9)	25( 4.7)	53( 5.3)	3( 3.8)	1( 1.7)	4( 2.9)
③부모님과 함께 함	56( 4.9)	25( 5.3)	30( 5.6)	55( 5.5)	-	1( 1.7)	1( .7)
④가족사랑	49( 4.3)	28( 5.9)	17( 3.2)	45( 4.5)	2( 2.6)	2( 3.3)	4( 2.9)
⑤가족위계질서	18( 1.6)	7( 1.5)	8( 1.5)	15( 1.5)	1( 1.3)	2( 3.3)	3( 2.2)
⑥행복함	15( 1.3)	10( 2.1)	5( .9)	15( 1.5)	-	-	-
<b>3. 마음이 편함</b>	<b>154(13.4)</b>	<b>56(11.8)</b>	<b>84(15.7)</b>	<b>140(13.9)</b>	<b>10(12.8)</b>	<b>4( 6.7)</b>	<b>14(10.1)</b>
①마음이 편함	73( 6.4)	28( 5.9)	41( 7.7)	69( 6.9)	3( 3.8)	1( 1.7)	4( 2.9)
②마음의 안정	37( 3.2)	11( 2.3)	20( 3.7)	31( 3.1)	5( 6.4)	1( 1.7)	6( 4.3)
③안심이 됨	26( 2.3)	10( 2.1)	13( 2.4)	23( 2.3)	1( 1.3)	2( 3.3)	3( 2.2)
④자기만족	18( 1.6)	7( 1.5)	10( 1.9)	17( 1.7)	1( 1.3)	-	1( .7)
<b>4. 의지가 됨</b>	<b>120(10.5)</b>	<b>42( 8.9)</b>	<b>51( 9.6)</b>	<b>93( 9.2)</b>	<b>16(20.5)</b>	<b>11(18.3)</b>	<b>27(19.6)</b>
①의지가 됨	49( 4.3)	17( 3.6)	20( 3.7)	37( 3.7)	8(10.3)	4( 6.7)	12( 8.7)
②삶의 지혜 배움	37( 3.2)	13( 2.7)	17( 3.2)	30( 3.0)	3( 3.8)	4( 6.7)	7( 5.1)
③튼튼함	21( 1.8)	6( 1.3)	8( 1.5)	14( 1.4)	4( 5.1)	3( 5.0)	7( 5.1)
④위로가 됨	13( 1.1)	6( 1.3)	6( 1.1)	12( 1.2)	1( 1.3)	-	1( .7)
<b>5. 자식의 도리를 다 함</b>	<b>116(10.1)</b>	<b>58(12.3)</b>	<b>50( 9.4)</b>	<b>108(10.7)</b>	<b>6( 7.7)</b>	<b>2( 3.3)</b>	<b>8( 5.8)</b>
①효도할 수 있음	36( 3.1)	19( 4.0)	17( 3.2)	36( 3.6)	-	-	-
②자식의 도리를 다 함	31( 2.7)	17( 3.6)	9( 1.7)	26( 2.6)	4( 5.1)	1( 1.7)	5( 3.6)
③건강을 챙겨드림	20( 1.7)	11( 2.3)	7( 1.3)	18( 1.8)	1( 1.3)	1( 1.7)	2( 1.4)
④부모님이 편안함	15( 1.3)	6( 1.3)	8( 1.5)	14( 1.4)	1( 1.3)	-	1( .7)
⑤보살펴드릴 수 있음	14( 1.2)	5( 1.1)	9( 1.7)	14( 1.4)	-	-	-
<b>6. 부모님이 도와줌</b>	<b>76( 6.6)</b>	<b>20( 4.2)</b>	<b>44( 8.2)</b>	<b>64( 6.4)</b>	<b>4( 5.1)</b>	<b>8(13.3)</b>	<b>12( 8.7)</b>
①자녀양육을 도와줌	47( 4.1)	12( 2.5)	28( 5.2)	40( 4.0)	2( 2.6)	5( 8.3)	7( 5.1)
②가사일에 도움줌	19( 1.7)	6( 1.3)	10( 1.9)	16( 1.6)	2( 2.6)	1( 1.7)	3( 2.2)
③경제적 혜택	10( .9)	2( .4)	6( 1.1)	8( .8)	-	2( 3.3)	2( 1.4)
<b>7. 기타</b>	<b>18( 1.6)</b>	<b>8( 1.7)</b>	<b>5( .9)</b>	<b>13( 1.3)</b>	<b>2( 2.6)</b>	<b>3( 5.0)</b>	<b>5( 3.6)</b>
①없음	9( .8)	3( .6)	2( .4)	5( .5)	1( 1.3)	3( 5.0)	4( 2.9)
②모름	6( .5)	3( .6)	2( .4)	5( .5)	1( 1.3)	-	1( .7)
③기타	3( .3)	2( .4)	1( .2)	3( .3)	-	-	-
총합계	1145(100.0)	473(100.0)	534(100.0)	1007(100.0)	78(100.0)	60(100.0)	138(10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부모님이 도와줌도 지적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주인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예절교육, 인성교육, 웃어른 공경임으로써, 노부모를 부양하면 한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중년 성인이 인식하고 있었다. 노부모 부양의 좋은 점으로 가정화목 또한 대표적으로 지적한 결과는, 한국 중년 성인이 가정화목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내면화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형태별로 분석했을 때, 핵가족과 대가족 모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 가정화목의 순서로서 전체 반응과 일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범주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핵가족은 마음이 편함을, 대가족은 의지가 됨을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를 부양할 때 핵가족의 중년 성인은 마음이 편하고, 대가족에서는 의지가 된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가족형태별로 성별 반응에서 차이도 있었는데, 핵가족의 중년 남성 경우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됨, 가정화목, 자식의 도리를 다함의 순서로 반응함으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함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가족의 중년 여성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 가정화목, 의지가 됨, 부모님이 도움 줌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가족의 중년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노부모를 부양할 때 부모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 의하면 핵가족과 대가족의 중년 성인은 학력(표 3 참고)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도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학력을 제외하고는 가정경제수준(표 4 참고), 직업유형(표 5 참고), 사회계층지각(표 6 참고) 및 맞벌이 여부(표 7 참고)의 변인들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가정 경제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직업이 고위 관리전문직이거나 노동 생산직이라고 해서, 사회계층이 상류층이거나 하류층이라고 해서, 특정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아내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지 외벌이 부부인지 여부가, 핵가족이나 대가족을 결정하는데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느냐는 의견상 드러나는 사회경제적지위나 맞벌이 여부와 같은 가정환경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가족형태별 하위집단 표집수의 제한과 표집 지역의 제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보다는 가족구성원의 심리특성이 가정형태와 관련되어 있었다. 즉 가족형태별로 자기효능감과 행복에서 차이가 있었는데(표 10 참고),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노부모부양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더 높고,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였다(표 8 참고).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더 행복한 결과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일 때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온 정명숙(2005)의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므로 노부모와 함께 대가족으로 사는 여부를 결정할 때 중년 성인의 사회경제적지위나 맞벌이 여부와 같은 외적 환경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특징 중에서도 특별히,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노부모부양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효능감이 높다는 사실(표 8 참고)에

주목하게 된다. 부부관계효능감이 높고 부부 관계가 원만한 중년 성인일수록,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 형태를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한 달 평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부모님과 식사하는 횟수,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고(표 11 참고), 효도 마음이나 노부모 부양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12 참고). 즉 대가족의 중년 성인이 가정의 수입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와 대화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도 많았고 실제로 부양행동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형태별로 노부모 부양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힌 최정혜(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형태별로 실제적인 노부모 부양행동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노부모 부양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중년 성인은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마음편하게 해 드림을(표 14 참고),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으로 의견차이 및 경제적 문제를(표 15 참고), 노부모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면과 가정화목(표 16 참고)을 지적했다.

10명 중 3명의 중년 성인이 노부모 부양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는데, 이는 가족간 사회적 지원의 면에서 볼 때 흥미롭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은 서양 문화와 다른 독특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되었다(Yi & Nauck, 2006).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이 많았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아동이나 청소년기만이 아니라 성인기 자녀에 대한 노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시사한다. 표 16을 보면,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31.4%)이 대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됨(10.5%), 부모님이 도와줌(6.6%)이 중요한 범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중년 성인 2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노부모로부터 직접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 도움의 내용은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지가 된다는 것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으로 든든하고, 위로가 됨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어릴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중년 성인이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오히려 노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노부모 부양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를 제공한다. 정현숙(2004)은 맞벌이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구조와 기능 면에서 다양한 가족(재혼가족, 미혼부모 가족, 입양가족,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등)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가족과 대가족의 가족형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발달 환경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로 전반적인 노부모 부양행동이나 효도 마음에서 차이가 없었다(표 12 참고). 그러나 구체적인 노부모 부양행동 중에 노부모

와 식사 횟수에서 가족형태와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그림 1 참고). 핵가족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대가족에서는 중년 남성이 여성보다 노부모와 식사 횟수가 더 많았다. 성별로 전반적인 노부모 부양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중년 남성은 의견차이, 경제적 문제, 가족간 갈등, 자유롭지 못함의 순서로, 중년 여성은 의견차이, 경제적 문제, 자유롭지 못함, 가족간 갈등의 순서로 약간 달랐다(표 15 참고). 그러므로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부담이 더 있었다. 이러한 중년 여성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노부모와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수균 등(2015)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노부모와 관계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장문선과 김영환(2002)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데, 중년 여성은 대가족보다 핵가족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사실은 중년 여성이 노부모 부양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중년 성인이 노부모 부양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은,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의 효도와 관련하여 중년 성인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자녀의 효도에 대한 시각에 초점을 두었고(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2011;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 인식이 탐구되었으나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되어 왔다. 선행연구 결과는 한국인 효도의 토착심리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나, 중년의 성인 자녀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대가족과 증가하고 있는 핵가족 구성원의 심리 행동특성과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 문화에 따라 가족형태나 가족구성 및 가족가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Georgas, Berry, Vijver, Kagitcibasi & Poortinga, 2006).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고유의 가족형태나 가족가치 등에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맥락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 구성원의 심리 및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Kim, Yang & Hwang, 2006). 여기에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총 1,258명의 중년 성인 중에서, 핵가족이 1,111명을 차지하고 대가족이 147명의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가족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표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족형태 변인으로 비교된 두 하위집단의 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집단 구성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들에 대한 해석을 신중히 해야 한다. 가족형태별 양적 분석에서만은 아니라, 특히 질적 분석(표 14, 15, 16 참고)에서는 대가족 경우에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셀별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기 때

문에, 단순 비율에 기초한 해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족형태 변인의 하위집단인 대가족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부모라고 했을 때, 중년 성인 남자에게는 친부모나 장인장모가 포함될 수 있고, 중년 성인 여자에게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정교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부모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서 중년 성인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이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시기가 2008년에서 2010년이었던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의 시기에 자료가 수집됨으로써, 그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8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갖고 있는 분석 결과들을 현재의 시점에 적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이 2년 7개월이나 걸린 것은 급격히 감소하고 극소수인 대가족의 자료를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집 수가 되도록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어쨌든 일반적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실제적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한국 사

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등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자인 중년 성인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편향이 발생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 상의 문제는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별 가정의 구조적 가정환경의 차이를 학력, 가정경제수준, 직업, 사회계층지각, 맞벌이 여부의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정의 구조적 가정환경을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 연구는 가족제도의 사회역사적인 맥락은 다루지 않고 심리학적인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가족제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기보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 적응적으로 변형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가족이 붕괴되고 핵가족이 적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사회역사적인 맥락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에만 미시적으로 집중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제도나 구조의 측면에 대한 고려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인식 및 관련 변인의 차이를 평면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한국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에 어떤 변인이 어느 정도의 설명변량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형태나 성별 변인 외에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년 성인이 노부모 부양을 잘 하는 효도행동이 어떠한 심리적 역동을 거쳐 형성되는지, 노부모부양효능감이나 부부관계효능감 등은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효도 정신의 역동을 규명해 나가는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가 효도에 대해 청소년 입장(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이나, 부모 입장(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에서의 인식과 그 심리적 역동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이를 확대하여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심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대별 노부모 부양인식을 심도 있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에 대해, 부모는 자녀 인성교육을, 초중학생은 의지가 됨을 대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노부모 부양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Ahn, Park & Kim, 2013; Han, Park & Kim, 201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와 유호식(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진보지향 가치가 높았고, 노인은 보수지향가치 및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많이 하는 세대 차이가 있었다. 김경은, 광금주, 민하영, 최지영과 전숙영(2011)이 세대별 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는 중년 인식의 대표적인 이유로 가족의 변화를 제시했고, 중년기 어려움으로 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세대차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노부모 부양인식은 어떠한지, 세대별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가족형태별로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의 심리 행동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핵가족이든 대가족이든 중년 성인은 노부모를 부양할 때 가장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표 14 참고). 노부모 부양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중년 성인의 인식이 현실에서 자녀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한 예로 대가족과 핵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 행동 차이, 인성,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행복, 학업성취, 일탈행동 등 다양한 심리 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형태로 대가족과 핵가족만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가족형태 구성원의 심리 행동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초엽 이후 3세대 가구는 줄어들고 1세대 가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인 가구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주된 가구 유형으

로 등장하였다(통계청, 2011).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족형태 구성원의 심리 행동특성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의 폭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기존의 가정형태 개념에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형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그러한 가족구성원의 심리 행동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예측과 건강한 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대가족에서 자녀나 손자 등 직계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과, 자녀와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신체 건강상태나 생활만족 수준이 낮고(석소현, 2008), 핵가족보다 대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9)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와 김경은(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 및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가족과의 접촉과 소통 및 지원의 확률이 높은 대가족의 노인과 독거노인의 정신적 건강이나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노년기에 주위사람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의미있는 연구 주제이다.

가족형태가 가족 구성원의 심리와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중년 성인만이 아니라 노부모의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형태가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정신건강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가족형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함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족형태별 분석 결과들이 이상에서 언급한 후속연구 과제들을 통한 학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미래 한국 사회 발전방향의 맥락에서 정책 수립의 과정에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인식은 10명 중에서 1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림, 대화함이라는 응답이 10명 중에서 5~6명을 차지했다(표 14 참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가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과거에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대표적인 노부모 부양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소수이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30~50대 연령층이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자녀세대는 더욱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거노인이나 시설거주 노인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가족형태나 사람들의 가족가치 인식이 변하는 가운데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 신체 건강, 인지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주위사람의 사회적 자원과 같은 관계적 자원을 어떻게 잘 유지 향상시켜서 성공적 노화와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을지는,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구성원 인식의 변화 가운데, 성공적인 생애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 참고문헌

- 김경은, 박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한국 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135~155.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효식 (2009).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남순현 (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인간발달연구*, 16(1), 197~222.
- 박영신 (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 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2), 109~141.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효도 관련 토착심리 탐구와 자녀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4), 87~120.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 부모 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의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415~443.
-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이 자녀의 효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3), 421~454.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양육 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203~241.
- 박영신, 이경란 (2014). 직장인의 직무만족도 형성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및 직무성취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0(4), 469~491.
-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성

- 취와 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3), 505~542.
- 서수균, 신현희,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 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20.
- 석소현 (2008).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4), 564~574.
- 성태제 (2010). *현대교육평가(3판)*. 서울: 학지사.
- 이은희 (2000). 일과 가족 갈등의 통합모형: 선행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1~42.
- 장문선, 김영환 (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 정명숙 (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87~108.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13).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자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1), 79~99.
- 정현숙 (2004). 다양한 가족에서의 청소년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29~45.
- 조성원 (1996). 어머니와 딸: 부양행동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딸의 상호작용.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창간호*, 118~127.
- 최정혜 (2007). 기혼교사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2), 169~182.
- 최정혜 (2009). 한국과 미국 성인 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9(2), 611~627.
- 통계청 (2011). 2010 인구 주택총조사: 가구 주택부문 전수집계 결과.
- Ahn, J. Y., Park, Y. S., & Kim, U. (2012). Conception of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amo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AICP*, p. 4. December, 20-22. Malaysia.
- Ahn, J. Y., Park, Y. S., & Kim, U. (2013).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among Korea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AICP*, p. 201. August, 21-24. Yogyakarta, Indonesia.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Georgas, J., Berry, J. W., van de Vijver, F. J. R., Kagitcibasi, C., & Poortinga, Y. H. (2006). *Families across cultures: A 30-nation psychological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 K. H., Park, Y. S., & Kim, U. (2010).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AICP*. p. 318. July 24-27. Yogyakarta, Indonesia.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ür Allgemeine Pädagogik.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Lee, S. M., Park, Y. S., & Kim, U. (2011).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between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ASP*. p. 30. July 28-31. Kunming, China.
- Lee, S. M., Park, Y. S., Kim, U., & Song, O. R. (2014). The perception of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AICP*, p.109~110. January, 10-12. Surakarta, Indonesia.
- Yi, C. & Nauck, B. (2006). Gender, marriage and family support in East Asian families. *Current sociology*, 54(2), *Monograph 1*. Sage publications.

논문 투고일 : 2016. 05. 03

1 차 심사일 : 2016. 05. 11

게재 확정일 : 2016. 08. 11

## Adults' perception of elderly parents care and related variables in family structures

Young-Shin Park

Jung-Hee Kim

Sung-Sook Jeon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dult's perception of elderly parents care and differences of related variables between family structures. There were 1,258 participants (age 45; male=601, female=657; 1,111=nuclear, 147=extended). The measures yielded Cronbach  $\alpha$  = .67 ~ .95, inter-judge reliability = 95.1%, Kappa = .95.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family structures in terms of SES excepting academic career.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family structures in family relati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is, adults in the extended family, versus those in the nuclear family, provide greater emotional support to children, sacrificed more towards children, and have greater expectations for children supporting them when they retire. Also, adults in the extended family displayed greater self-efficacy and happines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family structures in caring for elderly parents. Adults in the extended family apportioned a greater parent's allowance, and more number of meals with parents, and spent more time talking with parents, and displayed greater degree of filial piety and more caring behavior towards parents. Fourth, as for the perception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when adults were asked about "the best way to care for parents",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providing a peace-of-mind for parents*. As for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caring for parents", *differences in opinions* followed by *financial difficulty* were the most. As for "the best aspects of caring for parents", the most frequent responses were *good for children's upbringing* and *family harmony*.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 Family structure, nuclear family, extended family, perception of elderly parents care, behavior of elderly parent care.